



대중문화 속의 도서관이야기

신용대출만 어려운 게 아냐!

글_전창호(부산여자대학 도서관 사서)

요사이 사채업을 전면에 내세운 모 방송사의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킨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무분별한 사채대출을 부추긴다고 하여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 광고물은 “대출은…”이라는 구절을 시청자들이 세뇌될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데, ‘대출’이란 용어를 입에 달고 사는 또 다른 직업군인 도서관 사서들로서는 그 광고를 접할 때마다 적잖은 거부감을 느낀다.

그렇게 쓸쓸함을 주는 대출이 있는 반면,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대출도 있다. 바로 도서관의 대출이다. 특히 도서관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사람들은 대출이란 서비스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혜택으로 느낀다고 한다. 수많은 책을 대상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고르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거나 무료로 집에 빌려갈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 초보자들은 어떤 책은 대출이 가능하고 또 어떤 책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된다. 어디 초보자들만의 성장통이겠는가. 실제로 도서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책은 대출이 안 됩니다”라는 설명이 끊이지 않는다. 그만큼 다양한 에피소드로 발전하게 마련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영화에서도 자료의 대출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모습은 클리셰(cliche)처럼 빈번하게 묘사된다. 영화 <산전수전>에서는 아현(김규리 분)이 도서관에 가서 잡지와 신문을 찾아보는 장면이 나온다. 필요한 잡지를 대출하려고 하자 사서는 “잡지는

대출이 안 되는데요”라고 제지한다. 왜 잡지는 대출이 안 되는 걸까? 잡지를 비롯한 ‘연속간행물’은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대출로 인해 잠시라도 한 호가 누락될 경우 불완전한 내용의 문헌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외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여인의 향기>에서는 학교 도서관의 학생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찰리(크리스 오도넬 분)에게 한 친구가 책을 들고 헐레벌떡 달려와 대출을 부탁한다. 찰리는 그 책이 ‘지정도서’라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친구는 퀴즈대회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정한다. <엠퍼러스 클럽>에서도 벨(에밀 허쉬 분)이 교내 경시대회를 위해 학교 도서관 사서에게 지정도서를 대출해 달라고 떼를 쓰는 장면이 등장한다.

도대체 지정도서(reserved book)란 무엇인가? 이는 대학이나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습이나 과제 작성을 위해 필요해야 하는 자료를 별도로 비치하는 책을 말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을 갖출 수는 없으므로, 도서관에서는 지정도서를 일부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관외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깨달았다면, <엠퍼러스 클럽>의 사서가 벨에게 다음과 같이 완곡하게 설명하는 의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밤새 이 책을 대출해달라고 했어. 만약 자네에게 빌려 준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은 항상 이 책상 위에서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



찰칵, 도서관 풍경

시험, 대학가 기말고사가 한창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학교 도서관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으니 그다음 순서는 가까운 동네 도서관 열람실 확보. 사실 과거에 비해 공부할 장소는 많아졌습니다. 한 집 걸러 영업 중인 커피 전문점만 해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친구들과 자유롭게 시험 정보를 나눌 수 있지요. 하지만 역시 공부는 '집중'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이라 면학 분위기 조성이 관건입니다. 엉덩이 붙이고 공부할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야 대기실에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쯤은 힘들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대기실이 열람실과 비슷하네요.)-6월 어느날, 마포평생학습관 대기실

글_ 송보경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

도서관계 소식

1.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족

지난 6월 19일 도서관 정책 주요사항을 수립하고 심의,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광화문 도림빌딩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초대위원장으로선 한상완 전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위촉하고 영부인 권양숙 여사와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등 도서관계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 위원회 발족을 축하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발효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에 의해 설치됐으며,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13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 26명으로 구성됐다.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발족은 기존의 도서관 정책이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10여 개 부처에 분산돼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어 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서관정

보정책위원회와 함께 문화관광부에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설립돼 실무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및 기획단 발족을 통해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도서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부산시, 구·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7월 1일부터 부산시는 도서관 이용 환경과 정보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해 개관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서관은 구·군 운영 10개 도서관(강서, 남구, 동구, 북구디지털, 영도, 해운대 반여, 수영, 금정, 기장, 사상 도서관)으로 자료실은 오후 6시에서 오후10시까지, 열람실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연장 운영 된다. 이로써 낮 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했던 지역민들은 도서 대출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